

몇 가지 제의

지금도 건축구조 기술사의 자격을 얻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나, 연간 1회 시험에 5~6명 정도 합격되던 80년대에 비하여 90년대 이후에는 자격시험도 연간 2-3회로 늘고 합격자 수도 4~50명에 이르고 있어 전보다 쉬워진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건축구조기술사회의 회원 수도 80년대 말까지는 50여명 정도였으나, 이제는 500명을 넘고 있어, 저변확대와 위상의 제고라는 관점에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이런 수적 증가의 이면에는 기술사의 자질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자격시험이 쉬워진 것과 자질이 낮아지는 것은 필연적인 상관관계일 것이다.

필자가 기술사 시험 채점과 면접을 하면서 여러 차례 느끼는 것은 많은 수험자들이 구조이론 또는 설계기준의 내용을 충분히 구조상세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점이다. 시험문제풀이는 곧잘 하면서 간단한 상세, 예를 들면 철골부재의 접합상세나 철근콘크리트구조에서 배근상세 등에서 취약한 면을 보여 기술사라는 최종관문을 통과시키는 데 주저하게 된다. 최근 필기시험에 합격하고도 면접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 수험자들에 대한 기술사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은 필자만의 느낌이 아닌 것 같다.

다 아는 말이지만 건축구조기술사는 그 이름에 걸맞게 건물을 구조적으로 적합하게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건물의 구조 적합성은 구조안전성, 사용성, 경제성 등 기존의 개념에 추가하여 내구성 및 시공성까지 포함한다.

구조안전성은 90년대 설계에 비하여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나, 최근의 구조설계추세가 강도설계의 기본목표를 지나 내구성 설계로 연장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구조설계, 특히 구조상세의 개발과 질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능인력과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시공성도 구조설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기술자의 윤리성과 관련하여 한가지 더 추가하면, 건축구조기술사의 본분과 사명, 구조기술 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와 구조기술개발을 통한 사회생활의 기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구조기술사 현장」의 제정을 제의하는 바이다.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기술의 개발과 실현이라는 필요조건과 더불어 기술자로서의 확고한 윤리성과 가치관 그리고 우리 사회의 한 축을 맡아야 하는 충분조건이 있음을 항상 새기고 있어야 할 것이다. **KSEA**



김상식
인하대학교 건축학부 교수